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심경호*

<차례>

1. 머리말
2. 함경도의 지리풍토와 문학
3. 평안도의 지리풍토와 문학
4. 맺는 말

<국문초록>

국토산하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면면히 이어 내려온 민족사의 무대로서의 역사미(歷史美)를 지니고 있다. 근대 이전의 고전 작가들은 국토 산하의 풍경이 인간 주체의 활동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산하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었다.

그런데 함경도와 평안도는 고려사와 조선사에서 늘 변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성계가 정도전에게 함경도에 산재한 능들을 조사시키면서 그 지역의 경역과 읍성들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함경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동케 한 시작이었다. 이후 세종은 김종서를 보내 4진을 개척했고,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다.

이후 조선 조정은 1413년에 우리 국토를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도의 8도로 구획했고, 이 조선팔도라는 국토관은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강원도의 일부, 황해·평안·함경도를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다.

함경도와 평안도에 관련된 시문을 읽는다는 것은 민족 화해의 인문학적 성찰을 부추긴다. 만일 민족 공동의 의식을 추동시키고자 한다면 팔도의 관념을 회복시킬

*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근대 이전의 고전문학에서 팔도를 인식한 방식을 이해하고 그 통일된 국토 관념을 환기하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주제어 관서, 관북, 역사미, 인문지리학

1. 머리말

국토산하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민족사의 줄기찬 흐름이 이루어진 생활공간으로서 역사미(歷史美)를 지니고 있다. 산하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 주체를 매개로 재구성되고, 산하가 이루는 풍경은 인간 주체의 삶에 의하여 부단히 변화한다. 근대 이전의 고전 작가들은 조국 산하의 풍경이 인간 주체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식했다. 그래서 고전 작가들은 국토산하의 자연미와 역사미를 노래하면서, 자신의 주체를 반성하고 자신의 삶을 가꾸었다.

고려와 조선은 국토 전역에 역(驛)을 확충해나갔다. 단 역의 증치는 시대마다 달랐다. 고려 때 520여개이던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480여개로 줄어들었다가, 『경국대전』 이전(吏典) 외관직(外官職)에는 540여개로 늘어났다.

조선시대에는 국경선을 따라 서울-의주간, 서울-경흥간의 간선과 강계방면, 삼수 방면의 지선이 정비되고, 중부 이남은 거의 대부분 고려의 소재지를 답습했다. 삼남은 역의 분포가 조밀한 반면, 평안·함경 양도의 산악지대에는 역 시설이 없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역로를 대·중·소로 구분했다. 『속대전』에 따르면 대로는 경기 12역, 중로는 경기 7역, 충청 24역, 전라 4역, 경상 5역, 강원 6역, 황해 11역, 평안 13역, 함경 37역이다. 기타는 모두 소로로 규정했다. 신경준의 『도로고』에 따르면 팔도 6대로는

의주(義州) 제1로(서울-昌城), 경흥(慶興) 제2로(서울-三水), 평해(平海) 제3로(서울-旌善), 동래(東萊) 제4로(서울-機張), 제주(濟州) 제5로(서울-南海……濟州), 강화(江華) 제6로(서울-喬桐)의 여섯이다.

그런데 함경도와 평안도는 고려사와 조선사에서 늘 변경으로 인식되어 왔다.

평안도는 서쪽에서 내침하는 적을 막아주는 번방(藩屏)의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에 홍건적이 황해도 극성까지 쳐들어 온 것은 평안도가 울타리가 되어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고려와 조선시대에 서부의 대찰로는 묘향산의 보현원이 거론될 뿐 그 북쪽에 어떠한 사찰이 있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세조 때 김시습은 서부 지역을 여행했지만, 그 여행 경로는 역로에 한정된다.

함경도도 북관 지역은 여진족과의 접경지로서, 조선초에는 국가의 경계가 모호했다. 그런데 함흥이 이왕조의 풍포(豊浦) 지역이었으므로,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심했다. 즉, 이성계는 정도전에게 함경도에 산재한 능들을 조사시키면서 그 지역의 경역과 읍성들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함경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동케 한 시작이었다. 이후 세종은 김종서를 보내 4진을 개척했고, 경흥 이남이 아니라 두만강을 국경으로 확정했다. 그 후 북관 지역에 6진이 확립됨으로써 두만강이라는 자연경계를 조선의 국경선으로 확정할 수 있었다.

조선 조정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북쪽의 경계로 확인하면서 그 이남의 지역을 우리 국토로 통일적으로 파악했다. 태종 13년인 1413년에는 전국을 경기·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평안·함경도의 8도로 구획했다. 중간에 여러 도의 명칭이 바뀌기도 했고, 고종 33년인 1896년에는 13도로 개편하기도 했지만, 조선팔도라는 국토관은 현재까지 우리 민족의 통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강원

도의 일부, 황해·평안·함경도를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다.

만일 민족 공동의 의식을 추동시키고자 한다면 팔도의 관념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근대 이전의 고전문학에서 팔도를 인식한 방식을 이해하고 그 통일된 국토 관념을 환기하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인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한시로 엮은 한국사 기행』(범우사, 1996), 『다산과 춘천』(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한시기행』(이가서, 2005), 『산문 기행 :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이가서, 2007), 『여행과 한중일 고전문학』(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등을 출간한 바 있다. 본고는 기왕의 저술을 토대로 관서·관북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에 대해 규전을 피력하고자 한다.

2. 함경도의 지리풍토와 문학

함경도 하면 대개 성난 바다와 거친 땅을 연상하게 된다. 다만 이곳에는 상고시대 이래 독특한 문명을 개화했다. 남북국시대에는 발해의 남경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에서는 북청군 북청토성, 회령군 인계리 토성, 김책시 성장리 토성 등의 평지성과, 함북 어랑군 지방리 토성 등의 산성, 그밖에 강어귀에 쌓아놓은 보루, 적을 차단하기 위한 하단성 등을 활발히 발굴했다.

그러나 고전문학이 함경도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조선후기의 일인 듯하다. 백두산도 속중 이후에야 일부 사람들에게 일종의 관광지가 되었다.

함경도의 근세 민요로 「신고산타령」이 있다. 신고산은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한 기차역 이름이니, 서양 문물이 들어온 1900년대 이후 이

지역의 풍물이 급속하게 변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또 대표적인 노래 애원성(哀怨聲)은 강원도 민요와 가락이 비슷하되 그보다 빠르고 애절하면서 거세다. 함경도의 거친 풍토를 반영하는 듯하다.

함경도는 철령관 북쪽 땅이라는 뜻에서 관북이라고 한다. 8도 중 면적이 가장 넓으며, 험준한 산악과 무성한 삼림, 추운 기후, 여진족의 내습, 부족한 농토 때문에 인구가 정착하기 어려웠다. 18세기 이후 회령과 경원을 중심으로 활발해진 만주지역과의 무역을 통한 상업의 발달, 금·은을 비롯한 풍부한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광업·수공업이 성장하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높아졌다. 1895년(고종 32)에 23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함흥부·갑산부·경성부가 설치되어 이 지역을 관할하다가, 1896년에 13도제가 실시되면서 함경남도과 함경북도로 나누어졌다.

고려 때는 윤관이 이민족을 정벌하여 함경도의 북변 지역을 경략했고, 조선 세종 때는 김종서와 이징옥이 육진을 개척했다. 육진은 종성, 온성, 회령, 경원, 경흥, 부령의 여섯 진이다. 이 지역을 북관(北關) 혹은 북새(北塞)라고 했다. 북한에서는 그것을 새별군, 온성군, 회령군, 온덕군, 선봉군으로 구획했고, 최근에는 선봉군과 나진시를 합쳐 '나진 선봉시'를 직할시로 삼았다.

회령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가 피신했을 때, 국경인(鞠景仁)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켜 왜군의 가토[加藤清正]에게 그들을 넘기고 항복한 일이 있다. 이때 함경도 병마평사 정문부(鄭文孚)와 경성훈도 이봉수(李鵬壽)가 의병을 일으켜 반란자를 토벌하고 왜적을 크게 이겨 관북지방을 수복했다. 그러나 정문부는 1624년(인조 2)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되었다가, 나중에야 신원되었다. 뒤에 최창대(崔昌大)가 「전승비」를 지어, 그 빗돌이 1707년(숙종 33)에 이르러 임명(臨溟)에 세워졌다. 「임명전승비」라고도 하고 「북관대첩비」라고도 한다. 임명전승비는 1905

년 일본군에 약탈돼 100년 동안이나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방치되어 있다가, 최근에 반환되어 북한에 반송되었다. 정문부가 국경인을 치는 장면은 「창의토왜도(倡義討倭圖)」(고려대 박물관 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정조 때 개명관료 홍양호(洪良浩)가 「임명대첩가(臨溟大捷歌)」를 지어 이렇게 논평했다.

김종서와 윤관의 강토 개척은, 나라에 위엄 있고 군대가 강해서였지만 공은 혼란할 때 빈주먹 휘둘러, 미친 물결 버티고 선 지주산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두만강 안쪽을 잃어버리고, 중국에게 땅을 계속 잠식당 했으리.

昔日金尹拓疆土，國威兵力是憑倚。
公遭板蕩奮空拳，屹若狂瀾障一砥。
不然不惟豆江以內非吾有，荐食上國從此始。

홍양호는 정조의 등극 직후 홍국영이 실권을 잡자 그와의 알력으로 경흥부사로 쫓겨났다. 평소 신경준(申景濬)과 교류하면서 북방 강역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지녀왔던 그는 『북새기략(北塞記略)』을 저술하여 선춘령비(先春嶺碑)의 위치를 새삼 환기시키고 북관의 경략 문제를 논의했다.

조선 조정은 1712년(숙종 38) 5월에 청과 국경에 대한 협정을 맺으면서, 청의 실무자 목극등(穆克登)의 계책과 외압에 떠밀려 백두산 남동방 4킬로미터, 해발 2200미터 지점에 세우고 경계선을 애매하게 기록하여 영토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그 정계비도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철거했다. 홍양호는 김종서의 시조를 한시로 번안하면서 잃어버린 땅을 찾으려는 노력이야말로 ‘남아사업’이라고 했다. 『북새잡요(北塞雜謠)』의 「괘검(掛劍)」이 그 번안시다.

홍양호는 또한 북관의 생활과 풍토에 주목해서 『삭방풍요(朔方風謠)』

와 『북새잡요(北塞雜謠)』를 엮었다. 그 가운데 경흥의 지리와 풍물을 소재로 한 민요조의 「공주요(孔州謠)」, 삼첩(三疊)은 이국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특이한 북관민의 생활을 약동적으로 묘사해내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시구가 있다.

녹둔도 근처는 말달리기 좋아, 왼쪽에 칼차고 오른쪽에 화살 끼고.
말을 달려 활쏘기를 겨루누나, 내달 행영에서 기사를 뽑는다지.
鹿屯島邊好馳馬, 左帶儉兮牛挾矢. 馳馬兮較射, 來屯行營選騎士.

녹둔도는 1586년(선조 19)에 둔전을 설치한 우리 영토. 행영은 장군이 임시 머무는 곳을 말하는데, 그곳에서 임시 시험을 치러 기사를 뽑았다.

녹둔도 주변은 우리 영토이지만 1860년의 북경조약 이후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으로 남하하여 국경이 새로 형성될 때, 그간 연해주 사이에 토사가 쌓여 녹둔도가 러시아 쪽 육지로 붙어버려 러시아에 점유되고 말았다. 1884년에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정식 국교를 맺고서 녹둔도 반환 문제를 교섭했으나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한편 종성(鐘城)은 수주(愁州)라는 별명이 있다. 박제가(朴齊家)가 순조 원년에 윤가기·윤행임의 옥사에 연좌되어 유배가 있으면서 그 지방 풍속과 느낀 점을 「수주객사(愁州客詞)」 79수로 담아내었다.

종성에서는 동전이 통용되지 않아 말과 배를 현물로 공납했다. 400필 말과 1000필 면포를 배에 실어 조창에 전하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그런데 종성의 토관(土官)들은 관령(官令)을 빙자하여 싼값에 초피(貂皮)를 사서 무산(茂山)에 가 팔았다. 서울 사대부 집에 비싼 값으로 팔아넘겨 부를 쌓거나, 초피를 너물로 발신했던 모양이다. 토관직은 평안도, 함경도의 부, 목, 도호부에 그 도의 출신을 따로 임명하는 벼슬이었다. 동반(東班)

은 정5품 통의랑 도무에서 종9품 시사랑 접사까지만 있고, 서반은 정5품 건충대위 여직에서 종9품 탄력도위 부여용까지만 있었다.

바짓가랑이 너풀너풀, 관령 띠고 무산으로 간다오.
헐값으로 초피 얻으니, 그대 출세 길을 알 것 같으니.
袴褶何翩翩, 官令茂山去. 廉價得貂皮, 知爾發身處.

정범조(丁範祖)는 49세 때인 영조 47년(1771)에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숙명(肅命)을 빨리 하지 않아서 갑산(甲山)에 정배되었다가 사면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경위를 『북정록(北征錄)』에 적었다. 이 때 「북새잡곡(北謠雜曲)」 전 17수와 후 11수를 짓고, 지방의 민간전승을 「춘랑사(春娘詞)」로 기록했다.

중인 조수삼(趙秀三)은 1822년(순조 22) 3월부터 10월까지 2백여 일 동안 관북을 여행하고 이듬해 평안도 신안(新安, 정주)에 있으면서 관북 여행의 견문을 『북행백절(北行百絶)』로 적었다. 전기(錢起)가 여행지에서 보고들은 바와 느낀 바를 절구 1백수로 지은 것을 본받되, 기쁘고 슬프고 놀랍고 혹은 우스운 일, 욕하고 통곡하고 눈물겹고 탄식할 만한 사실들을 소재로 삼았다. 그는 마랑도(馬廊島)에서 신역으로 말을 기르는 사람들의 고충을 이렇게 표현했다.

섬이 추워 말 기르기 맞지 않아, 삼동에 말들이 많이 죽는다.
봄 오면 죽은 말 변상에, 말 팔고 자식 팔아야 한다.
寒島不宜牧, 三冬馬多死. 春來還故失, 賣田兼鬻子.

함경도의 남부와 북부를 이어주는 교통로로서 험준하기 짝이 없는 고갯

길이 마천령(磨天嶺)이다. 마천령은 함남 단천군의 동쪽에 있는데, 한양에서 보아 동북방에 있으므로 귀문관(鬼門關)이라 부른다. 해발 873미터로, 옛 이름은 이판령(伊板嶺)이다. 여진 말로 소[牛]를 이판이라 한다. 어떤 사람이 산 밑에서 송아지를 팔았는데 어미 소가 새끼를 찾아 고갯길을 넘어온 이후 길이 트였다는 전설이 있다.

정두경(鄭斗卿)은 1634년(인조 12)에 북도평사가 되어 함경도로 갔는데, 그 때 저 유명한 「등마천령(登磨天嶺)」 절구를 지었다.

말을 몰아 마천령에 오르니, 층층 봉우리가 구름 속에 솟았다.

저 아래 펼쳐 있는 광대한 못, 모두 저것이 북해라 말하지.

驅馬磨天嶺，層峰上入雲。前臨有大澤，蓋乃北海云。

뒤의 두 구절은 『사기』 「대원전(大宛傳)」에서 따왔다.

북청의 토성은 청해토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북청에서 남동쪽으로 18킬로미터 떨어진 남대천 왼쪽의 넓은 벌판에 자리잡고 있다. 이 북청 토성에서는 발해 유물만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유적과 유물도 발견되어 왔다. 조선 후기에 우리 역사학자들은 이 토성을 숙신(肅愼) 토성이라 했다. 유득공은 이 지역에서 나온 청석제(靑石製) 돌도끼 하나를 갈아서 벼루로 만든 뒤 기념으로 「숙신노가(肅愼祭歌)」를 지었다. 김정희도 이 토성을 돌아보다가 석촉을 발견하고 시를 지었다.

한편 영흥(永興)은 이성계의 출생지이다. 한나라 유방이 패(沛) 땅에서 출생한 것에 견주어, 영흥을 패현이라고도 부른다. 이성계는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를 토벌하고, 흥건적이 개경을 함락하자 수도 탈환전에서 전공을 세웠다. 또 원나라의 나하추[納哈出]가 함경도 홍원(洪原)으로 침입하자 함흥평야에서 이를 격파하고, 연경(燕

京)에 있던 최유(崔濡)가 덕흥군(德興君)을 추대하고 1만 명의 군대로 평안도에 침입하여 공민왕을 폐하러 하자 최영(崔瑩)과 함께 이들을 달천강에서 대파했다. 여진족의 삼선·삼개가 함경도 화주(和州)에 침입한 것을 격퇴하고, 개경으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 이지란과 함께 함경도에 침입한 호바투[胡拔都]의 군대를 길주에서 대파했으며, 함경도 함주에 침입한 왜구를 함관령에서 격파했다. 조선시대 많은 시인들이 이성계를 전쟁영웅으로 부각시켜 찬양했다. 『용비어천가』는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성계가 여진족의 통두란을 휘하에 두고 무공을 세운 이야기는 야담으로 널리 전한다. 통두란은 이씨 성을 하사받고 이름을 지란이라고 했으나,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에는 함경도로 숨어들어가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함경도 여러 곳에서는 일찍부터 광산이 개발되었다. 조선말에는 벌써 노천광이 폐광이 되어 음산한 분위기를 띠는 곳도 있었다. 영흥에도 은광이 있었다. 이진창(李建昌)은 함흥(咸興)에서 일어난 민란을 수습하는 안핵사(按覈使)로 일을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영흥의 금파촌(金坡村)에 들러 폐광지역의 실상을 눈으로 보고, 「금파촌에 들리[過金坡村],」라는 시를 남겼다.

함흥은 기녀 가련의 이야기로 유명하다. 이옥의 「북관기야곡론(北關妓夜哭論)」이 잘 알려져 있다. 가련이 함흥태수를 따라서 낙민루(樂民樓)에 올랐는데, 만세교(萬歲橋) 쪽에서 오는 수려한 소년에 반했다. 이옥고 그를 집안으로 맞아들여, 문을 닫아걸고 촛불을 켜고는 방중의 놀이를 시작했다. 가련이 매우 기뻐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 하나를 만난 것만으로도 족하다. 내가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에 먼저 쪽진 머리와 치마를 풀고서 술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였다. 소년은 쭈뼛쭈뼛하면서, 즐거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등불이 꺼지고 향로의 향기가 사람에게 풍기게 되자, 소년은 다만 벽을 향해 모로 누워서 긴 한숨을 짓고 짧은 탄식을 할 뿐이었다. 가련은 처음에는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참 뒤에는 의심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 보았다. 그는 고자였던 것이다. 가련은 마침내 벌떡 일어나 손으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 사람이여, 이 사람이여! 하늘이여!” 한바탕 통곡을 하였다. 그리고 문을 밀고 내다보니 벌써 달은 지고 이미 새벽 기운이 깔렸으며, 새가 울고 꽃이 지고 있었다.

심노숭(沈魯崇)도 늙은 가기(歌妓) 계섬(桂織)을 위해 지어준 「계섬전(桂織傳)」(1797년)에서 가련을 언급했다. 심노숭은 계섬의 불우함을 위로하면서 그녀의 전을 써주었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만남의 어려움을 말하기 위해 가련의 고사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또 그 글에 보면 함흥기생 가련이 죽자 그의 묘에 ‘관북명기가련의 묘[關北名妓可憐之墓]’라고 표시해 준 이가 있다고 했다. 『청구야담』의 「탁종신여협연생(托終身女俠捐生)」이란 글에는 박문수(朴文秀)가 그 묘표를 써 주었다고 되어 있다. 뒷날 이진창(李建昌)도 「가련전(可憐傳)」을 지었다.

한편 학포(鶴浦), 국도(國島), 도안사(道安寺), 궤궁정(掛弓亭), 석왕사(釋王寺), 성진진(城津鎭), 칠보산(七寶山), 창렬사(彰烈祠), 용당(龍堂), 무이보(撫夷堡)를 북관십경이라고 한다. 숙종 때 남구만(南九萬)은 「북관십경도(北關十景圖)」를 모사하고 그 기문을 적었다. 이 가운데 칠보산은 함북의 금강이다. 칠보산지의 주산으로, 해발고도는 906미터에 달한다. 동일한 이름의 산이 충북 괴산군과 경북 영덕에도 있다. 북한은 1976년 10월, ‘정무원결정 제55호’에 의해 칠보산자연보호구를 설정했다. 칠보산지는 북서쪽으로 천불봉(天佛峰, 663미터), 남서쪽으로 옥태봉(玉

泰峰, 774미터)을 거느리며, 명천군·화대군·화성군·어랑군 등 4군에 걸친 넓은 지역을 포괄한다.

임형수(林亨秀)는 1542년 봄에 칠보산을 유람하고 「유칠보산기」를 지었다. 그는 회령관관(회령부 통관)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던 때 칠보산에 올랐다.

조선시대에 칠보산을 유람하고 기문을 남긴 사람으로는 임형수 이외에 이안눌(李安訥), 이동언(李東彦) 등이 있다. 칠보산 유람은 천덕(泉德)을 거쳐 칠보산에 들어가 금장사(金藏寺)를 보고 개심대(開心臺)·금강굴(金岡窟)에 오르는 것이 주행로였다.

백두산에 정계비가 세워진 이후로, 북쪽의 국경을 지키려는 마음과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보려고 지식인들이 백두산으로 향했다. 조선시대에는 백두산에 오를 때, 부령과 무산을 거치거나 갑산과 산수를 거쳤다. 무산을 거쳐 올라가는 경우, 부령과 무산의 경계에 있는 차유령을 넘어 다음 길로 나아갔다.

산양암-갑령-임강대-삼산-풍파-오갈암-소로평-대로평-정평-소흥단-석류계덕-장파)-녹운산-남중산-천평-보타산-대흥단-남중산-소류동-대류동-작봉-반교-삼태봉[두을죽]-귀룡소-삼지-허항령-천수동-포석동-대각봉-연지봉-감도봉-천지

백두산은 신성한 산이다. 지방 사람들은 산에서 노루, 사슴, 담비 따위를 사냥하기 전에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물가 사람들은 수신에게 기도했다. 등산할 때는 허항령과 연지봉 아래서 제사지냈으며, 연지봉 숙소에서는 떠들거나 농지거리하지 않았다. 이의철(李宜哲)은 1751년 5월 24일부터 윤5월 3일까지 백두산을 유람하고 「백두산기(白頭山記)」를 적었는데,

그 역시 허항령과 연지봉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백두산을 유람하려고 백성을 20여 명 정도 뽑아 사흘 전에 먼저 보내 임시 숙소와 길을 찾도록 시켰다. 때로는 더 많은 수의 백성들을 동원했다. 이 점은 조선시대 백두산 유람이 낳은 큰 폐단이었다. 하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백두산의 장대한 풍광을 사랑했다. 백두산은 절대로 거칠거나 혼탁한 기상이 없다. 이의철은 “덕을 갖추어 밝고 깨끗한 기상은 우리나라 산들 가운데 최고다. 그래서 우리 산천의 조종(祖宗)이다”라고 했다.

3. 평안도의 지리풍토와 문학

평안도는 대륙을 압도할 요새인 철옹성이 있다. 또한 중국을 오가는 사신 일행이 거쳐 가는 곳이기도 하다. 평안도의 끝이라고 할 의주(義州)는 왜란 때 선조가 몽진(蒙塵)한 곳이다. 선조는 명나라의 원조와 이순신 등의 선전으로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으나, 전후 7년에 걸친 전화로 서울을 비롯한 전 국토는 유린되고 국가재정은 파탄 직전에 이르렀다.

한양에서 의주까지 연장된 의주로(義州路)는 신원리(고양시) 및 선유리(파주읍) 부근을 제외하면 오늘날 1번국도-39번국도-307번 도로로 연결되는 노선과 거의 일치한다.

의주 통군정(統軍亭)은 사방이 탁 트여 중국의 산하와 성곽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정자였다. 옛 부터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길목으로 알려져 있다.

황호(黃虯)는 젊은 시절 의분(義憤)으로 오랫동안 실의하고 만년에도 김자점의 무고로 외직으로 쫓겨나거나 유배를 당한 불운한 인물이다. 36

세 되던 인조 18년(1640)에 청나라의 용골대가 나오자 36세 때 접반관으로 의주에 두 차례 왕래했다. 그 때 의주 통군정에서 「가다가 의주 시에 차운하여 감회를 적다[行次義州感述]」시를 남겼다.

통군정 아래엔 압록강 물 넘실대는데
일찍이 강 언덕에서 중국사신 기다렸네.
천지는 지금 요약한 기운으로 가득하건만
산하는 옛날과 같아 마음 더욱 아파라.
선왕 때 나라 운명 이 곳에서 움츠렸고
명나라 군사는 변세를 넘어 멀리 왔었지.
누가 이 나라에 의로운 선비 없다 했나
앉아서 오랑캐 기병 날듯 지나감을 보다니.
統軍亭下鴨江波，曾向江頭候使華。
天地祇今氛祲滿，山河依舊感傷多。
先朝國步臨關蹙，萬曆王師出塞遐。
誰謂大東無義士，坐看胡騎歟飛過。

안주의 백상루는 영변의 약산동대,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 의주의 통군정, 선천의 동림폭, 평양의 연광정, 성천의 강선루와 함께 관서팔경으로 꼽는다. 오광운(吳光運)은 「백상루(百祥樓)」 시에서 을지문덕의 위업을 환기하고, 스스로의 고단한 처지를 던고 의분을 떨쳐 보았다.

영변은 고려 때의 연주(延州)와 무주(撫州)를 합하여 조선 세종 11년(1429)에 대도호부로 되었다. 영변의 본성, 북성, 신성, 약산성은 관서지방 제1의 요새이자 우리나라 제1의 요새로 철옹성이라고 한다. 곧, 정주, 꾀산, 철주 등지와 함께 우리나라 서북면의 요새로 대륙으로부터의 침략을 제압할 기상이 서려 있었다. 권필(權鞞)은 「절도사 장만을 진송하여 쓴

철옹성 노래[鐵甕行送張晚節度]에서, “청천강 굽어보며 태백산(묘향산) 등에 업어, 서방에 우뚝 서서 국가 보루 되었도다[橫臨薩水負太白, 雄峙西方作保障]”라고 노래했다.

영변의 약산동대는 절승지로 이름이 높다.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 의주의 통군정, 선천의 동림폭, 안주의 백상루, 평양의 연광정, 성천의 강선루와 함께 관서팔경으로 꼽는다. 무주의 동쪽에 있던 누대같은 바위라고 하여 동대라고 하는데, 영변읍에서 보면 오히려 서쪽에 있다고 한다.

영변 남쪽에 있는 묘향산은 단군이 탄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중기의 문인으로 거란의 침략을 막는 무공을 세운 김인경(金仁鏡)은 그 산 입구에 있던 보현사(普賢寺)라는 절을 노래하면서 적을 압두할 기개를 부처에게 빌었다. 김인경의 본래 이름은 양경이다. 시부에 뛰어난, 「한림별곡」에서 ‘양경시부’라고 칭송되었다. 보현사는 정종 8년(1042)에 탐밀과 그의 조카 평확(宏廓)이 이룬 243칸의 대찰을 이루었으며, 후에 340칸으로 확장했다고 한다. 고종 3년인 1216년에 요나라 왕자 금산이란 자가 김취려 장군에게 패하여 묘향산으로 들어갔을 때 절을 불태우는 등 전화가 잦았다. 북한은 그 대웅전을 국보로 지정했다. 김인경은 시에서, “법력으로 오랑캐를 항복시키매, 광주 벌판엔 병마가 한가하리[須知法力降胡虜, 草綠郭原戰馬閑]”라고 노래했다.

철주(鐵州)는 수령 이원정(李元禎)이 항몽 전투 끝에 장렬한 최후를 마친 곳이다. 1231년(고종 18)에 살례탑이 함신진(咸新鎭)을 빼앗으려고 철주 성을 공격할 때 이원정은 성을 고수하다가 힘이 다하자 창고에 불을 지르고 처자도 불 속에 들게 한 다음 자결했다. 고려 원종 때 김구(金丘)가 「철주를 지나면서(過鐵州)」 시를 지어 영웅의 출현을 갈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의롭고 장한 혼백 어디로 간 것일까, 천고에 고을 이름만 헛되이 철(鐵)이라 하는구나[忠魂壯魄向何之, 千古州名空記鐵]”

철산(鐵山)은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의 무대가 된 곳으로 유명하다. 세종 때 평안도 철산에 사는 배좌수(裴좌首)가 부인이 장화와 홍련을 낳고 죽자 허씨를 재취로 맞았으나, 심성이 사나워 딸들을 학대했다. 장화가 정혼을 하자 허씨는 혼수에 들어갈 재물이 아까워 장화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속이고, 자신의 소생인 장쇠로 하여금 못에 빠뜨려 죽게 한다. 이 사실을 안 홍련마저 못에 빠져 죽은 뒤, 못에서는 밤낮으로 곡성이 났다. 그 뒤 이 두 원혼은 신임 부사 정동우(鄭東佑)에게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했고, 부사는 계모와 장쇠를 능지처참하고 비를 세워 자매의 혼령을 위로했다. 그러나 한문본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전주 출신의 무인 전동홀(全東屹)이 효종 때 철산부사로 있을 때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1818년(순조 18)에 박인수(朴仁壽)가 쓴 것이라고 한다.

곽산군의 진산은 능한산(凌漢山)이다. 산성이 있으니, 곧 선천·곽산·정주 삼군의 병사가 후금과 맞섰던 전장이다. 광해군 때 정두경(鄭斗卿)이 산성에 올라 지은 시(「登凌漢飲酒 3」)는 대륙을 압두할 만큼 기상이 씩씩하다.

정주는 1812년(순조 12) 봄에 홍경래난이 일어난 곳이다. 정주는 홍경래의 내용자인 김이대와 최이륜의 출생지라는 이유로 목에서 현으로 강등되어 있었다. 그 해 4월에 민란이 진압된 뒤 정주현감 막하에 있던 조수삼(趙秀三)이 홍경래 난의 경과를 「서구도울(西寇鬻兀)」이라는 장편시로 서술했다. 조수삼은 「정원의 난리 뒤에 대소 인민들에게 알리는 글」과 「정주의 시정사항에 관한 공문」을 현감 대신 지었고, 1813년 정월 19일에는 전몰장병을 제사지내는 글과 난리로 죽은 백성들을 제사지내는 글을 지어 현감을 도왔다. 「서구도울」은 조수삼이 홍경래난의 경위와 경과, 결말을 직접 탐문하여 지은 오언고시인데, 1백 8십 6개의 운자를 사용했으니 모두 1860글자이다. 조수삼은 홍경래의 봉기군을 명화적(강도)으로 규

정했고, 또 봉기군에 가담한 대다수 백성들을 두고 배고픔을 못 참아 가담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진압과정에서 공이 있거나 충절을 다한 인물들을 칭찬하고 봉기군에 가담한 관리들은 비판했다. 그리고 송림동 전투, 우군측과 홍충각의 피격, 홍경래의 패주, 북장대의 폭과작전 등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조수삼은 관군측의 실책에 대하여도 비판했다. 윤옥렬이 봉기군의 기습으로 군사를 잃은 사실을 비판했고, 송림동 전투 뒤 관군이 저지른 약탈에 대하여도 신랄하게 적었다. 또 봉기군과 관군의 접전에서 희생된 백성들을 동정했다.

평안도는 변화한 도성 평양을 끼고 있다. 백광홍(白光弘)은 명종 10년(1555)에 평안도 병마평사로 부임하면서 우리말로 「관서별곡」을 지어 평안도의 경승을 노래한 일이 있다. 평양을 노래한 부분을 현대어로 옮겨본다.

감송정(感松亭) 돌아들어 대동강 바라보니
 십리파광(十里波光)과 만중연류(萬重烟流)는 상하에 어리었다
 춘풍이 현사하여 화선(畵船)을 빗기보니
 녹의홍상(綠衣紅裳) 빗기얏아 섬섬옥수(纖纖玉手)로 녹기금(綠綺琴)
 뜰으며
 호치단순(皓齒丹脣)으로 채련곡(采蓮曲) 부르니
 태을진인(太乙眞人)이 연엽주(蓮葉舟) 타고 옥하수(玉河水)로 내리는듯
 설마라 왕사미고(王事靡盬)한들 풍경에 어이하리
 연광정(練光亭) 돌아들어 부벽루(浮碧樓)에 올라가니
 능라도(綾羅島) 방초와 금수산(錦繡山) 연화(烟花)는 봄빛을 자랑한다

‘능라도 방초’와 ‘금수산 연화’라는 노래구절은 너무도 애절하여,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한다.

백광홍은 짧은 노래인 「관산별곡(關山別曲)」도 지었다. 본래 한시였는

지 아니면 우리말 노래를 한자시로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말의 이유원(李裕元)이 『해동악부』에 칠언절구로 소개한 것이 있다.

평양성에는 모두 여섯 문이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대동문은 조선 초인 1406년에 세워져 1541년의 전란 때 불탔다가 1577년에 개축되었다. 3층으로 된 큰 문루로서 정교하고 규모가 웅대하기로 이름나 있다. 대동문과 이웃하여 덕암(德巖) 위에 연광정이 있다. 덕암은 떡바위라는 우리 식 이름을 한자어로 바꾼 이름이다. 대동문 앞길로 강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모란봉이 있다. 그 도중에 대동문에서 1km 쯤 되는 곳에 권번학교(기생학교)가 있었다. 이 권번학교는 조선시대에 교방(敎坊)이 있던 자리였다.

부벽루에서 모란봉으로 오르는 초입에 영명사(永明寺)가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건립한 아홉 대찰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 당초에는 여덟 가람으로 이루어진 큰 절이었지만 임진란과 청일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고 지금은 칠성암 자리만 남아 있다. 또 이 절에는 본래 고구려의 구제궁(九梯宮)이 있었다고 한다.

영명사 남쪽 기슭에 기린굴(麒麟窟)의 입구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구려 동명왕이 기린말을 여기서 길렀다 하는데, 뒷사람이 비석을 세워 기념했다. 세상에서 전하되 왕이 기린말을 타고 이 굴에 들어 땅속에서부터 조천석으로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말발굽 자국이 지금도 돌 위에 있다”고 했다. 대동강을 굽어보는 언덕에서 있는 대동문 바깥에 나루터가 있었다. 고려 때에는 대동루가 있었고 그 바깥이 나루터였다. 고려 중엽의 시인인 정지상(鄭知常)이 지은 「친구를 전송하며[送友人]」의 배경이 이 나루터다. 임제(林悌)도 대동강을 배경으로 하여 이별의 정한을 「패강가(溟江歌)」 10수로 그려내었다.

연광정과 부벽루는 서로 짝을 이루는 경승이다. 연광정은 평양감사의

술잔치 자리로 유명하며, 안주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과 함께 평안도 3대 명각의 하나로 꼽힌다. 관서 8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한편 부벽루는 흥상인(興上人)이 영명사의 남현으로 세운 것이다. 고려 예종이 팔관회를 열면서 김락과 신승겸을 위하여 「도이장가」를 지은 곳이 바로 여기다. 부벽루의 시판에는 많은 시가 걸려 있었으나, 압권은 목은 이색(李穡)이 23세에 지은 오연율시이다. 이색은 1350년에 원나라 국자감에 들어갔는데, 그 해 가을 귀근하러 귀국해 송도로 가는 길에 부벽루에 올랐다.

어제 영명사에 묵고, 잠시 부벽루에 오른다.
빈 성에는 조각달 한 조각, 오랜 바위산에는 천년의 구름.
기린마 한번 가곤 오지 않아라, 천손은 어디서 노니는가.
섬돌에 기대어 휘파람 부나니, 산은 절로 푸르고 강은 절로 흘러라.
昨過永明寺, 暫登浮碧樓. 城空月一片, 石老雲千秋.
麟馬去不返, 天孫何處遊. 長嘯倚風磴, 山青江自流.

평양은 기생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평양과 관계된 시에는 염정(艷情)을 노래한 것이 많다. 조선후기 평양의 풍속, 지리, 역사를 노래한 한시로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 108장이 있다. 평양감사로 부임하는 체제공을 위해 감사의 사시 행락을 상상하여 적은 시이다. 관서지방의 인문지리지인 관서지(關西志)라 할만하다. 평양감사의 잔치를 묘사한 시는 이렇다.

운모창 안에 잔치가 무르익어, 쌍쌍이 엮불하는 젊은 여인 목소리.
도화선 흔들며 나아갔다 물러섰다, 저마다 떼쓰며 시주금을 내시란다.
雲母窓間曲宴深, 雙雙念佛小娘音.
當前進退桃花扇, 面面生要施主金.

신광수는 과시(科詩)를 잘 지었는데, 특히 「관산용마(關山戎馬)」가 회자되었다. 평양의 교방과 흥루계에서 인기가 높았는데, 신광수 당시에는 평양기생 모란(牧丹)이 이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한다.

유득공(柳得恭), 이덕무(李德懋), 박제가(朴齊家) 등은 평양 기생의 공동묘지인 선연동(嬋妍洞)을 읊은 시를 남겼다.

심노숭(沈魯崇)은 청장년기 부친의 임소를 오가면서 많은 시간을 평안도에서 보냈다. 1783년 평안도 유람에는 거문고 악사 김광려(金光麗), 가자(歌者) 이의춘(李宜春), 시기(詩妓) 일지홍(一枝紅)을 대동했다. 일지홍은 성천의 유명한 기생이었다. 심노숭은 1784년에 「서호가(西湖歌)」 12수를 지어, 여성의 심리를 묘사해냈다. 제11, 제12수는 이전의 전통 시들과는 상당히 다르다.

시름이 마치 쌓인 곡식 같아
관선에 관곡이 쌓였네
그 중 가장 많은 자
1,800곡(斛)이라네
강가 영명사는
석불이 예로부터 신통하니
시주 이 낭자가
어제 근사한 남자를 만났다네.
積愁如積穀, 官船積官穀. 其中最多者, 一千八百斛.
湖上永明寺, 石佛古來神. 施主李娘子, 昨日見良人.

고려 때는 지리산, 삼각산, 송악산, 비백산을 사악신(四嶽神)으로 삼고 제사를 지냈다. 이어서 조선시대는 오악(五岳)을 정해서 동악에 금강산, 서악에 묘향산, 북악에 백두산, 남악에 지리산, 삼각산을 중악으로 삼아

국가의 안녕을 기원했다.

묘향산은 보현보살의 주재처라 하여 아미산라고도 부른다. 어구의 보현사는 북한의 가장 중요한 사찰이다. 산세는 두류산(지리산)보다 웅장하지 못하고 풍악(금강산)보다 빼어나지 못하다. 하지만 조선중기의 서산대사는 이 산이 두류산이 웅장함과 금강산의 수려함을 함께 지녀 장려하면서도 수려하다고 하고, 구월산은 이 산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 산을 향산이라 부르는 것은 향나무와 감탕나무[冬靑]가 많아 향기롭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산에는 단군이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정기가 모여 있기에, 형승의 관점에서만 이 산을 다른 산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곧, 묘향산은 역사서에 태백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서 환웅이 내려온 삼위태백을 묘향산이라고 했다. 또 고구려 주몽은 비류국을 아우르고 '다물'(옛땅 되찾기)을 선언한 뒤, 오이와 부분노에게 태백산 동남쪽 행인국(荇人國)을 정벌하게 했는데, 그 태백산이 바로 묘향산일 가능성이 있다.

조호익(曹好益)의 「유묘향산록(遊妙香山錄)」은 묘사가 세밀하다. 조호익은 송양(松壤) 곧 강동에서 귀양살이하던 1585년(선조 18)의 음력 4월 18일(기미)부터 5월 4일(갑술)까지 16일간 평안도 영변 남쪽에 있는 묘향산에 다녀왔다. 조호익은 묘향산의 신령한 기운이 단군을 낳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만일 지금이라도 기린이 잉태하여 새끼를 낳을 수 있다면 기린이 있을 수 있고, 봉황이 지금이라도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를 수 있다면 봉황이 있을 수 있오. 하물며 원초의 박실한 기운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삼광(三光, 해·달·별)과 오악(五嶽)의 기가 온전해서, 그 굴곡진 형기와 아름다운 기운이 모여 저절로 기이한 품물을 낳기에 충분한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소? 그러니 산이 이 분을 낳았다 해서 무어 괴이하단 말이오?" 함께 유람하는 사

람들이 모두 “그대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래서 시 한 구절을 지었다.
“하늘이 신인을 보내 천지의 한쪽 구석을 개창하니, 우리 동방의 백성과 만
물이 절로 융성하도다. 지금 높은 대 위에 자취가 남았나니, 머리 돌려 청산
을 바라보매 산이 있는 듯 없는 듯해라[天遣神人闢一隅, 吾東民物自于于.
祇今遺迹高臺上, 回首青山山有無.]”

조선 명종 때 문정왕후의 지원을 받은 허응대사 보우(普雨)는 보현사
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첫 손 꼽는 총림이라고 했다. 그 뒤로도 소실과 중
창을 거듭하다가, 서산대사 휴정(休靜)이 주석하면서 보현사는 우리나라
제일의 명찰이 되었다.

박제가는 묘향산을 유람하고 유산록을 지었다. 9월 13일(임진)에 초록
도포에 자줏빛 나귀에 올라 허리에는 칼을 차고 안장에 책을 싣고 떠났다고
했다. 글이 무척 감각적이다.

강화학과의 이광려(李匡呂)는 1776년, 이광려는 큰형 광윤(匡尹)과 함
께 묘향산 구경을 떠났다. 이 때 전택량(田宅良)이 같이 갔다. 전택량이
이광려를 따라 간 것이지만, 이광려는 묘향산 유람이 전택량 때문이라고
했다. 또 보현사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전택량의 치사리(齒舍利)가 나왔
다. 이광려는 기문에서 “내가 천리 길을 온 것은 규백을 보려고 한 것인
데, 이런 일까지 보게 되니, 이번 걸음은 아마 헛걸음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다. 곧, 묘향산의 산놀이는 오로지 임성자재(任性自在)의 행위였다. ‘자
질구레한 일에만 조심하되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었다. 이광려는 아예 전택량을 위해 불찬가(佛贊歌) 형식으로 찬
(贊)을 지어 붙였다. 산놀이하러 가서 놀이의 노정이나 산에서의 견문을
적지 않고, 산의 어구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겪었던 치사리 이
야기를 적은 것 자체가 기이하다.

4. 맺는 말

함경도와 평안도에 관련된 시문을 읽는다는 것은 민족 화해의 인문학적 성찰을 부추긴다. 특히 주로 사대부들이나 중인들이 남긴 한시와 한문을 읽으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민중의 삶과 지역민의 애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회령에서는 임진왜란 때 임해군과 순화군 두 왕자가 피신했을 때, 국경인(鞠景仁)이란 자가 반란을 일으켜 왜군의 가토 기요마사에게 그들을 넘기고 항복한 일이 있다.

또한 평안도에서는 홍경래난이 일어났다. 홍경래난이라 불리는 1812년의 평안도 농민봉기에서는 홍경래 측이 한문과 한글의 두가지 격문을 발표했다. 이 격문은 점령지역 내 군수 등에게 저항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현재 한글로 된 격문은 전하지 않고 한문 격문만 사료에 따라 조금씩 글자가 다르게 전한다. 『홍경래동란기(洪景來動亂記)』에 실려 있는 홍경래 측의 격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평서대원수가 급하게 격문을 발한다. 우리 관사의 부로, 자제, 공사의 천민은 모두 이 격문을 들어라.

대개 관서는 성인 기자의 옛 구역이자 단군의 옛 거처가 있던 곳이어서, 의관[예법]은 높고 문물은 찬란히 빛난다. 임진년의 왜란에 이미 조선을 재조(再造)하는 공이 있었고, 또 정묘년(1627) 후금의 변에는 양무공(襄武公) 정봉수(鄭鳳壽)과 같은 충의를 다할 수 있었다. 둔암(遯菴) 선우협(鮮于浹)의 학문과 월포(月浦) 홍경우(洪敬禹)의 재능도 또한 서토가 낳은 것이다. 그렇거늘 조정이 서토를 내버리듯 하여 썩은 흙과 다름 없이 여기며, 심지어는 중앙의 권력가의 노비까지도 서토 사람을 보면 반드시 평한(平안도 놈)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서토 사람이 어찌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겠는가? 만

일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서토의 힘에 의지하고, 과거 시험 때에는 반드시 서토 사람의 문장을 사용한다. 4백년 이래 서인이 조정에 무엇을 실망시킨 것이 있는가?

平西大元帥, 爲急急馳檄事. 我關西父老子弟公私之賤, 咸聽此檄.

蓋關西箕聖古城, 檀君舊窟. 衣冠岌濟, 文物炳烺. 粵在壬辰之亂, 已有再造之功, 又於丁卯之變, 克輸襄武之忠. 有如遜菴之學, 月浦之才, 又是產於西土. 而朝廷之等棄西土, 不異糞土. 甚至於權門奴婢, 見西土之人, 則必曰平漢. 其爲西土者, 豈不冤抑哉? 若當緩急, 則必賴西土之力, 且當科時, 則必籍西土之文. 四百年來, 西人有何負於朝廷哉?

격문은 곽산의 진사 김창시(金昌始)가 지었다고 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평안도민의 울분을 토로했고, 홍경래를 ‘세상을 구제할 성인’으로 부각시켰다. 이 봉기에는 농민들과 몰락양반층, 심지어 역노 출신으로서 향안에 이름을 넣으려 했던 인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 그들은 신분상의 차별과 함께, ‘평한(平漢)’의 차별을 극복하고자 했다.

사실 사대부와 중인들의 시문은 관북과 관서의 지역민들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들을 그 지방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조선중기 이후 지방관원의 부임일기가 그들의 생생한 삶을 잘 전달하고 있다. 선조 때 무장 박계숙(朴繼叔)은 함경도 회령의 견문을 『부북일기(赴北日記)』에 적었고, 그 아들로서 선전관이었던 박취문(朴就文)은 중성에서의 견문을 『부방일기(赴防日記)』에 남겼다.

앞으로, 민족의 삶을 조각내는 이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관북과 관서에 대한 지역주의의 편견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고전 연구가 일조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심경호, 『한시로 엮은 한국사 기행』, 범우사, 1996.
심경호, 『다산과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6.
심경호, 『한시기행』, 이가서, 2005.
심경호, 『산문기행: 조선의 선비, 산길을 가다』, 이가서, 2007.
심경호, 『여행과 한중일 고전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1.
심경호 역, 『선생, 세상의 그물을 조심하십시오』(이옥 원저), 태학사, 2001.6.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방식에 대하여」, 『한국학
논집』 41,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0.12., 89~124면.

ABSTRACT

The Human-Geographical Importance of
Gwanseo · Gwanbuk Area and its Literature

Sim, Kyung-Ho

Each land has its own historical beauty as well as its natural beauty, as a stage of history which has continued on without ceasing until now. Writers of pre-modern period noticed the fact that the landscape of their country was built up and changed by activities of man, and they composed poems and proses praising its natural and historical beauty.

Hamgyeong-do(province) and Pyeongan-do has been recognized as outlying districts in the history of Goryeo and Joseon. Yi Seonggye commanded to readjus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Hamgyeong-do when he ordered Jeong Dojeon to investigate tombs there and it caused its development in earnest. Since then, Sejong dispatched Gim Jongseo to found 6 military camps, and established the border.

Henceforth, Royal Court of Joseon readjusted the division of land as to be Pal-do(8 provinces)-Gyeonggi · Chungcheong · Jeonra · Gyeongsang · Gangwon · Hwanghae · Pyeongan · Hamgyeong, and this viewpoint of Pal-do became common sense of common people in Joseon. However, now it is impossible to come and go Hwanghae · Pyeongan · Hamgyeong and a part of Gangwon for political reasons.

Lines and phrases concerning Pyeongan-do and Hamgyeong-do lead us to take time for reflection on national reconciliation. It is needed to restore the idea of Pal-do, if one wants to arouse national consciousness, and for that it will also be a way to understand the way Pal-do understood in the literature of pre-modern period and to meditate on the traditional idea on the territory.

Key Words Gwanseo, Gwanbuk, Human-Geography, Historical Beauty.

논문투고일 : 2011. 10. 15
심사완료일 : 2011. 11. 30
게재확정일 : 2011. 12. 05